

2004 ICOLD 연차회의 참석기

1. 유치 단계

2002년 9월 27일 브라질 이과수에서 낭보가 들려왔다. 2004년 제72차 ICOLD 연차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집행위원회에서 참가회원국이 만장일치로 승인한 것이다. 이는 1972년 1월 4일 한국대댐회가 설립되고, 그해 4월 호주에서 개최된 제40차 ICOLD 연차회의에서 한국이 67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한 지 30년 만의 쾌거였다.

ICOLD 연차회의를 유치하고자 한 데는 몇 가지 배경이 있다. 우선 1990년대 말부터 2000년대 초까지 환경관련 시민단체의 강력한 반발로 영월다목적댐의 건설이 중단되는 등 향후 예상되는 수자원 부족문제에 대한 대비에 비상이 걸린 상황이었으며, 이로 인해 12개 신규 중소규모댐 건설도 난관에 봉착한 시기였다. 이에 따라 국제적인 전문가들이 참석하는 회의를 개최함으로써 국내에 오도되고 있는 댐에 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고자 하였다. 더 불어 남북한 공유하천 문제에 대한 국제적인 전문가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자문청취의 계기로 삼고, 더 나아가서는 댐 건설 및 관리에 관한 한국의 기술수준을 홍보함으로써 국내 댐 및 수자원 개발 기술의 해외진출 발판으로 삼고자 하였다.



고석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최병만

전 한국수자원공사
수도권지역본부장

그러나 ICOLD 연차회의 유치가 그리 쉬운 일은 아니었다. 아시아에서는 일본과 중국만이 회의를 개최하였다. 특히 중국 베이징에서 2000년 9월에 총회-연차회의가 개최된 지 불과 4년 만에 또 아시아대륙인 한국에서 회의를 유치한다는 것에 대해서 타 대륙의 반대가 심했던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한국대댐회는 기필코 유치하고 말겠다는 각오로 ICOLD 총재단과 주요 회원국을 각개전투전략으로 설득하기로 방향을 정하고, 2001년 9월 9일~15일 까지 독일 드레스덴에서 개최된 제69차 연차회의에 참석하였다.

고석구 회장을 비롯한 대표단은 회의기간은 물론 늦은 시각까지 ICOLD 총재와 사무총장, 각국의 대댐회 회장들과 돈독한 우의를 쌓는 데 많은 공을 들였다. 드레스덴에서의 에피소드를 소개하자면, 시내의 엘베 강 유람선 선상(船上)에서 ICOLD 총재단과 미국, 일본, 독일대댐회장들을 초청해서 와인 파티를 했는데 분위기가 얼마나 좋았는지 유람선 내에 준비해 두었던 수십 병의 와인이 동이 났다. 지배인이 기분이 좋아서 자기들이 아껴두었던 와인까지 공짜로 가져오는 등 한국인 특유의 통 큰 문화적 기질이 유감없이 발휘되었다. 다음날 새벽 고석구 회장은 ICOLD 사무총장과 2004년 서울회의 유치에 대한 담판을 했는데, 그 결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

는 약속을 얻어냈고 미국·중국·일본대댐회장 등도 지지를 해줌으로써 서서히 서울 유치 분위기가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지금도 엘베강 유람선 식당의 지배인이 한국인 관광객을 만나면 '넘버원'이라며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운다고 하는데, 사실인지 궁금하다.

독일에서 귀국한 후 한국대댐회는 여세를 몰아 2001년 10월 31일 댐 기술 국제심포지엄을 서울에서 개최하여 ICOLD 부총재와 미국, 일본의 대댐회장을 초청, 서울 유치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하였으며 이듬해 2002년 4월 1일에 공식적으로 유치의향을 제출하였다. 한국 개최에 대한 회원국들의 지지가 어느 정도 확산되자 한국대댐회 회장단에서는 가급적이면 회원국 모두가 만장일치로 한국 개최를 찬성하도록 하기 위해서 다른 국가의 유치신청을 원

천봉쇄하는 전략을 펼쳤는데, 2~3개의 유치의사가 있던 국가들이 한국을 지지하는 회원국이 많다는 것을 알고는 포기를 함으로써 대세가 한국으로 기울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노력들이 마침내 결실을 맺었는데, 2002년 9월 27일 제70차 ICOLD 브라질 이과수 연차회의 집행위원회에서 참가회원국 만장일치로 한국 개최가 확정되었다. 고석구 회장은 수락연설을 통해 2004년에 서울에서 개최되는 제72차 ICOLD 연차회의는 한국에서 최초로 개최하는 만큼 북한과 저개발국가 등 82개 회원국 모두가 서울회의에 참석하여 친목과 우의를 다지고, 한국의 전통과 문화를 배우고 체험하는 즐겁고 흥겨운 일정이 되도록 계획하여 관광과 축제의 연차회의가 되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림 1. 고석구 회장의 서울회의 유치 수락연설(브라질 이과수 제70차 연차회의, 2002. 9. 27.)

2. 준비 단계

한국대مم회는 2004년 제72차 ICOLD 연차회의의 위치를 확정하고 귀국한 후, 바로 긴박한 상황에 돌입하였다. 앞으로 남은 약 1년 6개월 동안에 연차회의를 완벽하게 준비하기에는 한국대مم회 사무국 조직이 너무 미약했기 때문이다. ICOLD 연차회의는 행사규모 및 기간, 참가회원국 수 및 참가자 등의 측면에서 한국대مم회가 겪어본 경험이 없었던 가장 큰 규모의 국제회의였다. 이에 따라 당시 한국대مم회 회장을 맡고 있던 고석구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은 2002년 10월 공사 직원 5명을 대مم회로 파견하여 ICOLD 2004 서울회의 임시사무국을 구성하고 본격적인 대회준비에 착수하였다.

무엇보다도 시급한 것이 행사를 기획·총괄하고 이끌어갈 조직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었다. 조직위원회는 수자원공사, 학계 및 연구기관, 엔지니어링

사 및 건설사를 총망라해서 수자원분야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하였고 특히 국내 원로회원과 미국, 일본대مم회 등의 회장단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 위촉함으로써 그 위상을 갖추었다. 2002년 11월 21일 수자원공사 본사에서 현판식을 갖고 'ICOLD 2004 서울회의 조직위원회'를 정식 발족하였다. 조직위 위원장에는 고석구 한국대مم회 회장(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이 선임됐으며, 부위원장에는 이길성 서울대 교수, 심포지엄 위원장은 윤용남 고려대 교수, 사무총장 김우구 수자원연구소장 등 총 37명의 조직위원을 선임하였다. 조직위원회 내에 설치된 사무국은 학술편찬, 행사전시, 홍보출판, 수송견학, 재정 등 5개 분과 총 32명으로 구성하였다.

조직위원회가 발족된 뒤, 사무국에서는 2002년 12월 초부터 2004년 5월 행사 개최까지 준비해야 할 업무를 주(週)단위로 세부적으로 구분한 뒤 아이템별로 추진하였다. 먼저 서울회의 명칭, 일정, 장소 및 엠블럼 등을 확정하였으나, ICOLD 연차회의 준비



그림 2. ICOLD 2004 서울회의 조직위원회 현판식(2002. 11. 21.)

표 1. ICOLD 2004 서울회의 행사 개요


| | |
|------|--|
| 명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문: ICOLD 2004 서울회의 • 영문: ICOLD 72nd Annual Meeting • 불문: 72ème Réunion annuelle de la CIGB |
| 기간 | • 2004년 5월 16일(일)~22일(토) |
| 장소 | • 웨라톤 그랜드 워커히 컨벤션센터(서울) |
| 공식언어 | • 영어, 불어 |
| 엠블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댐을 형상화한 ICOLD의 문양과 우리나라 건축기술을 대표하는 보물1호 남대문을 함께 사용함으로써 현대와 고전 건축의 조화를 추구 |

표 2. ICOLD 2004 서울회의 일정

| | 5월 12일~15일 | 5월 16일(일) | 5월 17일(월) | 5월 18일(화) | 5월 19일(수) | 5월 20일(목) | 5월 21일(금) | 5월 22일(토) | 5월 23일~27일 |
|----------|--------------|----------------------|-------------------|----------------------|-------------|-------------|-----------|-----------|------------|
| | 오전 | 오전 | 오전 | 오전 | 오전 | 오전 | 오전 | | |
| 등록 | | ICOLD 회장단 및 분과위원장 회의 | ICOLD 기술분과 위원회 회의 | Technical Tour (총주뎀) | 워크숍 | ICOLD 집행위원회 | 심포지엄 | | |
| | | 전시회 | 전시회 | 전시회 | 전시회 | 전시회 | | | |
| Pre Tour | 오후 | 오후 | 오후 | 오후 | 오후 | 오후 | | | Post Tour |
| | ICOLD 총재단 회의 | ICOLD 기술분과 위원회 회의 | | Technical Tour (총주뎀) | ICOLD 집행위원회 | ICOLD 집행위원회 | 심포지엄 | 심포지엄 | |
| | | 전시회 | 전시회 | 전시회 | 전시회 | | | | |
| | | | | 환영리셉션 | 문화공연 | | | 환송연 | |



그림 3. ICOLD 총재단, 국제 댐 안전 심포지엄 참석 (2003년 11. 10.)

시 주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규정상 프랑스 파리에 있는 사무국과 사전에 협의한 후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회의일정은 관례적으로 6일 동안 개최하는 것이 원칙이었으나, 당시 ICOLD 사무총장이었던 Mr. Bergeret의 요청에 따라 기술분과위원회(Technical committee)와 집행위원회(Executive meeting)를 1일 연장하여 2004년 5월 16일부터 22일까지 7일간 개최하는 것으로 확정하였다.

행사개요가 확정됨에 따라 사무국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준비에 매달렸다. 당시 ICOLD 사무국이 있는 프랑스 파리와 ICOLD 서울회의 사무국이 있는 대전과는 7시간의 시차가 있어 우리 사무국 직원들은 늘 새벽 1시 내지 2시에 파리사무국과 전화통화를 하거나 이메일을 주고받는 고생을 해야 했다. 이따금 새벽 3시쯤 연락을 하면 파리 사무국 직원들이 “당신들은 잠도 안 자냐?”는 농담과 격려를 건네기도 했다.

개략적인 회의개최 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사무국에서는 본격적으로 행사준비에 들어갔는데, 국제회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많은 참가자를 유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조직위원회에서는 가급적 ICOLD 연차회의의 최초로 82개 회원국 모



그림 4. ICOLD 총재단 서울회의의Check-point Meeting (2003. 11. 11.)

두가 참석하는 것을 목표로 참가유치 활동을 펼쳤다. 한국대댐회는 ICOLD 연차회의를 주최하는 국가 중에서는 최초로 82개 회원국 중 국가 경제사정이 어려워 연차회의의 참석을 못하고 있는 부르키나파소, 네팔, 콩고, 마다가스카르, 헝가리, 수단, 코스타리카, 앙골라, 볼리비아, 우루과이, 알제리, 알바니아, 과테말라, 크로아티아, 가나, 온두라스 등 16개국을 선정하여 참가경비를 면제해 줌으로써 ICOLD 회장단은 물론 회원국으로부터 많은 칭송을 받았다.

특히, 남·북한 수자원 기술교류 활성화를 목적으로 1988년에 ICOLD 회원국으로 가입한 북한을 초청 국가 대상에 포함하여 2004년 서울회의에 참가하도록 ICOLD 사무국과 중국대댐회를 통해 의사전달을 했으나 끝내 참가하지 않아서 아쉬움을 남겼다. 회의개최 준비가 어느 정도 마무리자 2003년 11월 11일 Mr. Viotti ICOLD 총재를 비롯한 5명의 회장단이 방한하여 회의장소인 워커히 호텔과 Technical Tour 코스인 충주댐 등을 돌아보며 서울회의의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점검 결과, 서울회의의 준비상황에 매우 흡족한 평가를 해주었고 특히, Mr. Viotti 총재는 한국대댐회 측의 저개발 회원국가 참가지원에 대해 특별히 감사하다는 의사를 밝혀 조직위원회의 결단이 성공적이었음을 느낄 수 있었다.

3. 회의 개최

약 1년 6개월의 준비기간을 거쳐 드디어 2004년 5월 16일 제72차 ICOLD 연차회의가 워커히호텔 컨벤션센터에서 막을 올렸다. ICOLD 연차회의의 역사상 최대규모인 65개 회원국에서 Mr. Viotti 총재, 중국 수리부 부부장과 러시아 및 이란의 에너지부 차관을 비롯하여 국내외 댐 관련 전문가 938명이 참가 등록을 마쳤다.

5월 16일부터 22일까지 회의기간 중의 심포지엄과 워크숍은 당시 한국에서 가장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던 지속가능한 개발과 환경(ESSD), 댐 안전(Dam safety)을 주제로 각각 열렸다. 두 학술회의는 전 세계 석학들이 160여 편의 논문을 제출함으로써 학술적인 측면에서도 큰 성과를 거두었을 뿐만 아니라, 이 논문들이 지속가능한 개발과 댐 안전문제 등 국내 현안문제를 해결하고 발전방향을 수립하는 데 귀중한 자료가 되었다. 또한 5월 17일부터 21일까지는 전시회가 함께 개최되어 ICOLD 회원국들이 자국(自國)의 댐 건설, 장비 및 계측기기 관련 전문기업을 소개하고 기술과 제품을 전시하였는데, 약 3,300명이 전시회장을 방문하여 상당한 반향을 일으켰다.

서울회의의 기간 중에는 각국 정부의 수자원분야 고위급 인사들이 대거 참가하여 한국과의 기술교류와 협력을 약속하였다. 우리나라와 지리적으로 가까운 러시아와 중국뿐만 아니라 한국의 건설사들이 진출해 있는 중동의 이란 등과의 교류는 우리나라 수자원기술의 해외진출에 교두보를 마련해준 것으로 평가받기도 하였다. 특히, 한·중·일대댐회 기술협약은 동아시아(EADC) 댐 기술 교류회의로 확대되어 지난해까지 7회 대회로 지속되고 있다.

서울회의에서 거둔 또 하나의 수확은 ICOLD 총재단에 윤용남 교수가 부총재로 선출된 것이다. ICOLD 총재단은 총재와 6명의 부총재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총재단 진입을 위해 노력해 왔으나 번번이 유럽과 아메리카대륙의 장벽에 가로 막혀 뜻을 이루지 못하다가 서울회의를 통해서 성공을 거두게 되었다. 이후 ICOLD 내에서 한국의 위상도 크게 올라갔고, 댐 기술에 대한 한국의 전문력도 인정받는 계기가 되었다.



그림 5. ICOLD 총재단 및 분과위원장 회의(5. 17.)



그림 6. 전시회 개막식의 Ribbon Cutting(5. 17.)



그림 7. Welcome Reception(워커힐 제이드가든, 5. 17.)



그림 8. 고석구 회장과 Mr. Viotti 총재의 Cheers!(5. 17.)



그림 9. Asia-Pacific Group Special Session(5. 18.)



그림 10. Cultural Program 중 리틀엔젤스 평화메달 증정(5. 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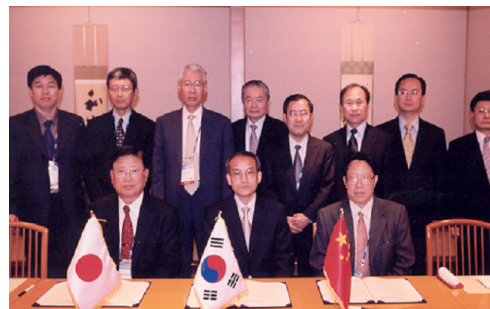


그림 11. 한-중-일대담회 기술협약 체결(5. 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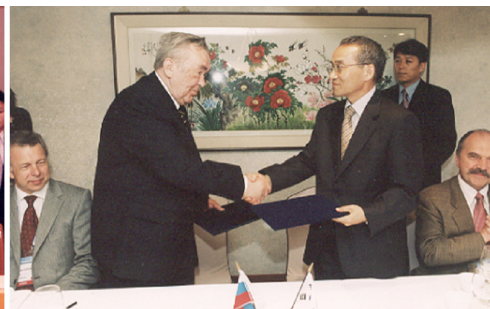


그림 12. 한-러대담회 MOU 체결(5. 21.)



그림 13. 중국 수리부(水利部)와 기술협력의향서 체결(5. 20.)



그림 14. 한-이란 수력청(IWPC)과 MOU 체결(5. 22.)

4. 맺음말

2004년 ICOLD 서울회의는 참가국이 총 65개국에 이르러 수자원분야의 전 세계 협의체로서 큰 획을 그었다고 할 수 있다. 참가국 중에는 수자원분야 선진국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중동 등 아직은 수자원 분야의 개발 전(前) 단계에 있는 국가도 다수 포함되어 있어 이들 국가와의 인적교류를 통해 해외시장에서의 발전 가능성을 열어놓는 결과를 가져왔다.

아울러 서울회의를 통해 세계인에게 한국의 이미지를 확고하게 심어 주었으며, 한국인 특유의 치밀함과 섬세함이 외국 참가자들에게 크게 각인되었을 뿐만 아니라, 한국의 독특하고 아름다운 전통과 문화에 놀라고 찬사를 보냈던 것으로 기억된다.

에피소드 하나를 이야기하면, 아래에 있는 한복 입은 여인 포스터는 ICOLD 서울회의를 홍보하는 이미지로 가장 좋다는 중론이어서 사진모델과 연락을 해서 어렵게 초상권 사용허락을 받았다. 역시 회의 기간 내내 무척 인기가 좋아서 많은 참가자가 1부씩 달라고 할 정도였고, 특별히 동반자 프로그램에 한복입기 체험코스를 개발하는 계기가 되었다.

서울회의의 피날레를 장식하는 환송연 끝난 뒤, 서울 회의의 성공적인 폐막을 축하하고 이별의 아쉬움을 달래기 위해 ICOLD의 Mr. Viotti 총재, Mr. Bergeret 사무총장, 고석구 회장, 김우구 사무총장, 미국대담회 Mr. Walz 총재 부부, 일본대담회 일행이 행사장인 워커힐 호텔에 있는 노래방에 갔던 일도 기억에 남는다. 아마도 한국의 노래방 문화를 몰랐는지 처음에는 어색해하다가 차츰 분위기가 익숙해지자 외국 대표들 간에 서로 노래를 부르겠다고 마이크 쟁탈전이 일어났고, Mr. Walz 부인은 너무 신이 나서 하이힐을 벗어던지고 남편의 노래에 맞춰 멋진 춤까지 보여주는 등 진풍경이 벌어졌다. 지금도 Mr. Viotti 총재는 ICOLD 회의에 참석하는 한국대표단에게 그때의 추억이 정말 좋았다는 말을 들려주곤 한다.

ICOLD 연차회의는 매년 개최국이 바뀌어 열리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회의에 참석하는 수많은 참가자가 2004년 서울회의가 역대 최고였다고 회상하면서, 3년마다 개최되는 ICOLD 총회(연차회의의 포함)를 한국이 유치하면 좋겠다고 말한다. 그런 얘기를 들으면 한국대담회와 한국수자원공사가 회의준비에 얼마나 많은 정성을 들였는지 또 그 결과가 얼마나 좋았는지를 실감하면서, 정말로 가까운 장래에 우리나라에서 ICOLD 총회가 개최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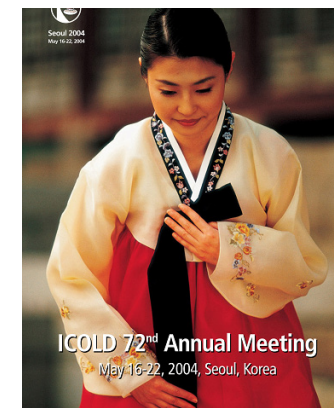


그림 15. 한복 입은 여인 포스터



그림 16. 동반자 프로그램, 한복 입기 체험(5. 20.)